

[2025년 하반기 군산시 축제위원회 회의록]

1. 회의 개요

- 일 시: 2025. 10. 22.(수) 14:00
- 장 소: 4층 상황실
- 참석대상: 부시장(위원장), 축제위원회 위원, 관계부서장 등
- 주요내용: 2026년 축제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
- 보고부서: 5개 부서 (*보고자: 관계 부서장)
 - 관광진흥과, 도시재생과, 수산산업과, 먹거리정책과, 농촌지원과

2. 개회

- 사회: 축제지원계장 서진일
 - 개회 선언 및 진행 순서 안내

3. 인사말씀

- 김영민 위원장(부시장)

4. 안건설명

- 심의안건 : 5개부서 6건
 - 관광진흥과 : 2026 제14회 군산시간여행축제, 군산짬뽕페스티벌
 - 도시재생과 :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
 - 수산산업과 : 어촌 섬마을 장터
 - 먹거리정책과 : 2026 군산 수제맥주&블루스 페스티벌
 - 농촌지원과 : 제21회 군산콩당보리축제

5. 2026 축제 사업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

도시재생과

- 안건명: 제9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

① 오충섭 위원

-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는 군산만의 감성과 상징성을 지닌 차별화된 브랜드 축제임.
- 축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, 반복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진화(브랜딩 리뉴얼) 필요성 제기.
- 내년 10회차를 맞아 기념 특집 기획 및 리브랜딩 강화 제안.

② 김영란 위원

- 축제의 확장세가 정체된 상황을 지적하며, 현재 지역 중심 행사로 한정되고 있음을 언급함.
- 프로그램 강화 및 외연 확장을 위해 **전담 사무장 상시 배치 필요성** 제기.
- 주최·주관 단체(우체통거리경관협의회·운영회)에 실질적 상근 운영인력 부재 문제를 지적함.

↳ 도시재생과장

-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우표박물관 건립 추진 중이며, 시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진행 중임.

③ 오충섭 위원

- 전주는 ‘책의 도시’로 알려져 있으나, 군산 역시 텍스트 기반 문화가 강점임을 언급함.
- 손편지축제의 성격이 글쓰기와 감성 표현 중심이므로, ‘**텍스트 및 북페어**’ 등 문학·출판 행사와의 연계 제안.

④ 최부헌 위원

- 대학과 연계한 아날로그 감성 콘텐츠 개발 필요성 제기.

⑤ 김영민 위원장(부시장)

- 포항 구룡포 우체통 체험 사례를 참고해, 군산 근대거리와 연계한 아날로그 체험 프로그램 도입 제안.
- 일본식 근대건축물과 어우러진 상징 우체통 설치 및 체험형 콘텐츠 운영 필요성 강조.
- 내년 10주년을 맞아 **대형 우체통 설치와 기념 퍼포먼스 연출 제안.**

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

-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가 도시재생사업 내에서만 추진되어 행정·재정적 한계 발생.
- 기존 도시재생 완료 지역의 재지원 불가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.
- 도시재생 구역 내 유휴 건물(2층 상가)을 전시·체험 복합공간으로 매입 추진 중.

⑦ 이승환 위원

- 축제위원회의 사전 정보공유 및 자문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.
- 각 축제의 **자체평가 및 추진계획 자료 사전 제공** 요청.
- 군산 축제들이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으나, 소규모 축제의 기획력·지속성 한계를 지적.
- 축제 전문인력 발굴과 체계적 육성이 부족해, 행정 위주 운영으로 정체 현상이 발생.
- 타 지자체(정읍, 진안 등)의 대학 참여 사례를 참고해, **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**를 제안.

수산산업과

- 안건명: 어촌 섬마을 장터

① 이승환 위원

- 수산물축제 예산이 군산 내 축제 중 가장 적어 외부 관광객 유입 한계가 있음.

- 축제의 실질적 경제효과를 위해 **직거래장터 운영 및 판매 구조 강화 필요성**을 강조.
- 축제 일정이 기존(3월)에서 10월로 변경되며 시기별 어종·상품 경쟁력 저하가 우려.
- 짬뽕페스티벌 등과의 연계 개최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제안.
-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정기 일정 고정화를 통한 브랜드 안정화 필요성 제시.
- 개최 시기 불안정, 테마 변경 등으로 방문객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.
- 내년이 5회차임을 고려해, 정기 일정 확정 및 대표 프로그램 고정화를 통한 브랜드 안정화 필요성을 제시.

↳ 수산산업과장

- 선거·장마 영향으로 3월 → 가을 일정 변경 불가피했다고 설명.
- 올해는 직거래장터 중심, 도서 지역 포함 확대 운영 계획.
- 내년부터는 ‘**군산어촌 직거래장터**’ 명칭으로 실속형 전환 예정.
- 가을철에는 **꽃게·바지락·물김** 등 제철 수산물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 예정.
- 전반적으로 축제를 판매 중심에서 가족 체험형·직거래 실속형 행사로 개편할 방침.

② 오충섭 위원

- 수산물축제가 수산산업과 소관이지만, **해양관광과 연계성이 높음**을 강조.
- 해양관광은 향후 5년간 문체부·해수부 공동지원 전략사업으로 추진 예정.
- ‘**K-관광섬**’과 연계해 **트레킹·콘텐츠 촬영 등 복합 관광사업 확대** 가능성 제시.
- 축제들이 개별 추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, **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** 언급.
- 해양수산부, 문체부, 행안부 등 관계 부처 간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함.

③ 김영란 위원

- 수산물축제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, 캐릭터 ‘**갑돌이**’의 활용 미흡함.
- 도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**내륙 소비·관광 연계형(투트랙)** 구성이 필요.
-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중 구도심은 인파가 몰리지만 수산권역은 유입이 적어 지역 간 불균형 발생을 지적.
- 영덕 등 타 지자체처럼 지속성과 방향성을 유지한 운영 체계 확립을 요청.

④ 김봉곤 문화관광국장

- **제주 은갈치축제 벤치마킹 사례**를 소개하며, 수산물축제의 시그니처 품목 개발이 필요함.
- 군산을 대표할 특화 어종(예: 오징어 튀김 등) 중심으로 브랜드화 제안.
- 시식·체험 프로그램과 온라인 판매 연계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홍보 효과 기대.
- **다품목 운영보다 핵심 품목 중심 기획의 중요성** 강조.

↳ 수산산업과장

- 군산은 전국 **홍어 생산량의 43%**를 차지, 목포·흑산도보다 3배 이상 많음.
- 최근 3년간 안정적 어획량을 기반으로 **홍어를 축제 대표 어종**으로 추진 예정.
-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해 **홍어 가공제품 4종**을 개발 완료.
- 향후 **홍어 중심 + 제철 수산물 결합형 복합축제**로 구성 계획.
- ‘**군산=홍어의 도시**’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 목표로 제시.

⑤ 이승환 위원

- 축제 성공의 핵심은 사전 **홍보 체계 확립**임을 강조.
- 개최 최소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·SNS 홍보를 시작해 방문객 인지도를 높여야 함.
- 김천 '김밥축제' 사례처럼 적은 예산이라도 명확한 시그니처가 있으면 전국적 주목 가능성을 언급.
- 주제·부주제 **명확화**와 **상생 구조 설계**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제안.

⑥ 김영민 위원장(부시장)

- 축제 성격이 체험·관광·해산물 중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기준점이 모호.
- 단순 장터 수준이 아닌, **군산시 주관의 대표 해양·도서형 축제**로 **규모화** 필요.

□ 먹거리정책과

○ 안전명: 2026 군산 수제맥주 & 블루스 페스티벌

① 김영란 위원

- 인근 상인들의 불만은 어느 축제나 존재하나, 주최 측이 흔들리지 않고 운영 집중이 중요.
-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에서, 느린 음악 위주의 공연 구성에 **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댄스 음악을 일부 포함**할 것을 제안.
- 유명 가수 초청보다는 **지역 예술인 및 호원대 실용음악과 학생 등 지역 인재 활용**을 통한 무대 구성이 필요.
- 현장 판매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 상인 간 형평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.
- 매출이 높은 업체는 일정 비율의 **지역 환원(기부) 형태로 참여 유도**하는 방안 제안.

↳ 먹거리정책과장

- 무대 공연은 스피커 음량 과다 및 단조로운 음악 구성으로 관람객 불편이 제기됨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.
- 젊은층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장르 확대, 지역 예술인 및 시립예술단 참여 등 다채로운 공연 구성 추진 계획을 설명.
- 공연 시간 운영 방식을 '45분 공연+15분 휴식'에서 '30분 공연+토크 이벤트'로 조정해 관객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검토 중.
- 참여 업체는 군산 소재 사업자 등록 업체로 한정하고, 공정한 배정을 위해 '사다리타기' 방식 도입 등 객관적 절차를 적용 중.

② 김영민 위원장(부시장)

- 버스킹은 소음 분산 우려가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.
- 대신 대형 전광판 중계로 무대·부스 현장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을 집중도 높은 대안으로 제안.

③ 이승환 위원

- 블루스 장르의 특성과 젊은 층의 흥을 절충할 다양한 음악 구성 필요성을 제기.

- 축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무대·음향 설치에 집중된 점을 지적, 방문객 체감도가 낮은 항목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분산 배정할 필요가 있음.
- 축제의 본질이 '맥주 중심'인 만큼, 음악이 주객전도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.

④ 오충섭 위원

- 전주대 가맥축제 사례를 언급하며, 젊은 층 중심의 활기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.
- 대학생 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(공연·운영·서빙 등)를 통해 축제의 에너지와 현장감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.
- 성공 축제의 벤치마킹 및 멘토링 체계 도입을 제안하며, 지역 상인 참여 확대와 품질 높은 먹거리 제공의 중요성을 언급.

⑤ 최부현 위원

- 가맥축제 사례를 언급하며, 명확한 타깃층 설정이 축제 홍보·마케팅의 핵심임을 강조.
-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려는 기획은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, **컨셉트와 관객층을 구체화할 필요성**이 있음.
- 축제 장소 또한 익숙함과 참신함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.

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

- 주차난 해소 및 상권 연계를 위해 구시청 광장 이전 검토 중.
- 예산 제약으로 인해 당장은 추진이 어려우나, 도심권과의 접근성 향상 및 상권 연계 효과를 고려해 향후 이전을 검토할 계획.

농촌지원과

○ 안건명: 제21회 군산콩당보리축제

① 김봉곤 문화관광국장

- 수산물축제처럼 주민 주도형 소규모 축제도 점차 성장이 가능할 것.
- 군산의 농촌 특성 및 보리 자원을 활용해 수제맥주 축제로 확장된 과정을 예로 들며,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.

② 최부현 위원

- 맥주 원료(보리 등)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축제의 스토리라인을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함.
- 군산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과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.
- 지역 내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,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축제 홍보 확대를 제안.

관광진흥과

○ 안건명: 2026 군산시간여행축제 및 군산 짬뽕페스티벌

① 최부헌 위원

- RISE 연계 보고: 호원대(공연·음악), 군장대(패션·푸드) 협업 구조 설명.
- 이머시브 공연인 초원사진관·조선식량영단·해망군 등 공간 기반 퍼포먼스를 운영함.
- 일회성 홍보가 아닌 '상시 기대 유발' 구조로 전환 필요.
- 짬뽕페스티벌 '100년 전 짬뽕' 원형 스토리·이머시브 공연·뮤지컬 갈라 연계 제안.
- '갓깨비' 등 문화원형 기반 캐릭터·스토리 축적 강조.
- 청년 정주·상시 프로그램인 버스킹·상설공연·학점연계 실습 필요성 제기.
- 금년 성과로 2월에 평가에서 예산 더 확보 목표임. 누적 성과 축적의 중요성 강조.

② 김종필 위원

- 예산 제약 속 노고 인정하나, 전년도 대비 체험형 프로그램 축소 아쉬움 표명함.
- 청소년 '미션형' 체험 부재 지적함(전년도 호응 사례 대비 공백 문제임).
- 개막식 연출은 과도한 신파 톤, 콘셉트 전개의 이질감 언급함(관객 반응 사례 전달).
- 축제 스토리라인의 대중성·현장 몰입도 강화 필요 제기함.

③ 김영란 위원

- 올해 축제 완성도는 높았다는 평가 표명.
- 상가 앞 좌석·가림물 설치로 인해 주차·통행 방해됨. 상가 협조 부족 문제 제기.
- 공모를 통한 근대문화 + 지역 미식(짬뽕·쌀·수산) 결합 애니메이션 제작 제안함.
- 개·폐막식에 '지역 상징 스토리' 애니메이션 영상 상영 제안함.
- 민원 대응·상생을 위해 상인 멘토 참여, 상가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언급함.

④ 이승환 위원

- 체험 프로그램 수가 과도하게 축소되면서 축제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흔들렸다고 봄.
- 축제가 표방해 온 근대성 중심의 아이덴티티와 연계 동선(퀘스트형·순환형 체험 구조)가 약화.
- 작년 기준 체험 프로그램이 매우 많아 줄이라는 요구를 2~3년 전부터 지속 제기한 걸로 알고 있음. 올해는 그럼에도 반절 이상 줄었다고 체감.
- 결과적으로 체험 밀도·연계가 사라져 축제 특유의 동력이 약화됨.
- 축제의 정체성은 "근대화에 머무르는 축제"로 이해(= 정체성의 축이 분명).
- 현장 구현도 과거→현재→미래의 단계적 체험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.
- 과거엔 공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축소 필요 의견을 냈던 전례 존재.
- 올해는 초원사진관 구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관련, 메인 동선에서 이탈되어 이동 유인이 부족함.
- 군산 축제는 체험량이 많아 리플렛 의존도가 높았던 점은 이해.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람객은 리플렛만으로 동선을 짜지 않음.
- 과거에는 QR 기반 연계 체계가 곳곳에 있어 연쇄 구조가 작동 → 관람객이 축제 전 구역을 순환.
- 개막식 연출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, 다만 영상 저작권 귀속에 대해 질의
- 미디어 파사드 영상의 권리 귀속 주체·사용 범위·재사용 정책 사전 정리 필요.
- 주제관 영상 상영 시 시작 및 종료 구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 부재로 관람객 혼란 발생.
- 영상이 중간부터 재생되어 관람 흐름이 끊기고, 방문객이 내용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사례 다수 발생함.

- 전체 방문객 대비 주제관 관람객 비율이 5% 미만으로 추정됨. 주제관 운영 효율성 저조함.
- 주제관 영상의 주제 자체는 군산의 시간적 흐름을 담아 우수했으나, 상영 방식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음.
- **총감독 중심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 제기.**
- 전주 사례 언급, 총감독 체제 도입 이후 축제 경쟁력 하락 및 순위 하락 사례 존재함.
- 금년도 축제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이 정리되기 이전에 차년도 체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.
- 관광진흥과 차원에서 **올해 축제의 성과 분석 및 지속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.**

↳ 관광진흥과장

- 영상 재사용 가능 입장 표명 사항(세부 계약 범위는 추후 점검 필요 사항 언급).
- 총감독제 도입 효과와 시행착오 인정.
- 근대 편중 지양 및 1899~2050 시간축 확장 시도 보고.
- 체험 프로그램 예산 배분 축소 불가피성 설명.
- 내년도 보완·증액 시 체험 강화 계획 표명.

⑤ 오충섭 위원

- 변화 시도 자체는 의미 긍정함(오래된 축제의 전환 필요성).
- **정체성 유지 + '시스템' 개선 강조(담당부서 철학·내부 브랜딩 수립 필요).**
- **벤치마킹: 인천 개항장·목포 근대거리·타 도시 사례 비교 필요.**
- 내부·외부 평가 병행, 결과 공개 환류 제도화 제안함.
- 담당자가 **'하고 싶은 축제'**를 철학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. 변화의 시행착오 수용 강조.

⑥-1 이승환 위원

- 축제의 본무대가 '짬뽕 메인무대'처럼 보였다는 점이 아쉬움.
- 전년도에는 초원사진관 일원을 통제해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를 2열로 구성했으나, 올해는 지자체·지역 상인 참여 비율이 줄어들어 아쉬움이 있음.

↳ 관광진흥과장

- 2023년 초원사진관 인근 프리마켓 운영 시 동선 유입이 어려워 구시청광장 뒤편으로 이전한 사례 있음.
- 이후 주민 민원 및 이해관계 문제로 해당 구간 개최 불가 상황 발생.

↳ 김봉곤 문화관광국장

- 짬뽕페스티벌도 본래 짬뽕거리에서 진행되었으나 주민 요구와 민원으로 현 위치로 이전함. 이전 후 혼잡 해소 효과는 있었으나 원거리 상권 침체라는 부작용 발생.
- 축제 장소 조정 시 주민 협의 및 상권 영향 검토 필요.

⑥-2 이승환 위원

- 짬뽕페스티벌 장소 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.
- 공간이 확장되고 동선이 넓어져 **관람 편의성과 위생 이미지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.**
- **'0.5인분 판매 제도' 도입은 관람객 만족도 제고에 효과적이었다는 의견 제시.**
- 다만 작년 대비 일부 상징 콘텐츠(공룡 조형물, 체험 프로그램 등)가 사라져 아쉬움.
- 축제의 과거·근대·현재·미래를 잇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, 체험형 콘텐츠와 민간 참여 기회가 축소된 점 개선 필요.

↳ 김봉곤 문화관광국장

-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추진되었으나, 장비 임차비·설치비 부담이 큰 구조임.
- 대형 미디어 장비 설치(약 10억 원 규모)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.
- 이번 연출은 영상 투사 형태의 간이형 미디어 연출로 구성되었으며, 기술적 제약으로 몰입감이 낮았던 점을 한계로 언급함.

⑦ 최부헌 위원

- 인천이 '짜장면 원조'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듯, **군산 짬뽕의 정통성과 역사성 확립** 필요성 제기.
- '100년 전 짬뽕'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근대와 현재를 잇는 스토리텔링형 미식축제로 발전 제안.
- **짬뽕 원형 복원 및 이와 연계된 이머시브 공연·뮤지컬 갈라 등 콘텐츠 개발** 가능성 언급.
- 지역 자원을 활용한 K-푸드 콘텐츠 확장 사례(떡볶이, 해물, 쌀 등) 소개.
- 군산 짬뽕은 이미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한 만큼, **단순 판매 중심이 아닌 문화적·체험형 확장 전략으로 전환 필요.**
- 대학이 주체가 되어 20대 MZ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스토리형·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의사 표명.
- 군산 여러 축제 중 핵심은 '군산시간여행축제'임을 강조하며, 축제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고 언급.
- 각 축제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기보다,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속 축제가 파생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 제시.
- 킬러콘텐츠 중심의 운영이 중요하며, 이번에 제작된 테마음악과 어린이 뮤지컬을 대표 사례로 소개.
- 지역 혁신사업(RISE)과 연계해, 축제의 질적 성장과 지역 내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.
- 섬진지원 지원으로 전국 6개 대학이 참여한 AI 기반 영상·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공유.
- 젊은 세대의 창의적 시각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.
- 미디어아트 실 관람객 증가 등 긍정적 성과 언급, 구도심 공간 확장 및 체험형 콘텐츠 활성화 제안.
- 가족 단위 관람객 유입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상시 운영의 효과 언급.

⑧ 김봉곤 문화관광국장

- 지역 벽화를 활용해 스토리와 사연을 담은 **애니메이션·미디어아트 콘텐츠 사례(철원 사례)** 소개.
- 단순 시각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작가의 작품을 영상화하여 감성적 몰입도 향상 가능성을 언급함.
- 군산 또한 **근대 건축물·거리 예술 자원을 미디어콘텐츠로 재해석하는 방향 검토** 필요성 제시.
- TV 프로그램 사례를 인용하며, **개인 소장품과 사연을 연계한 전시 프로그램 도입** 제안.
- **시간여행축제의 성격에 맞게, 시민이 보유한 물품과 추억을 통해 세대 공감형 감성 콘텐츠 구성** 필요성 제시.
- 주제관 구성에서 벗어나, **시민 참여 전시존·사연 아카이브존 운영** 검토 제안.